

2007년, 제주 민속 프로젝트: 자연의 천국 문화유산 복원  
2007: the Year of Jeju Folklore Project- Reviving the  
Cultural Heritage of Nature's Paradise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 과장 (전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 과장)

# 2007년, 제주 민속 프로젝트 자연의 천국 문화 유산 복원\*

## ● 한 민호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 과장(전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 과장)

### 개요

2006년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의 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립민속박물관과 제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향후 10년 간 이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특정 지역에 차례대로 중점을 두고 한 지역 당 2년의 연구 시간을 할당한다. 2년 중 첫 해는 선정된 지역의 민속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해에는 첫 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 공연, 학술회의 등을 개최한다. 요컨대, 이 프로젝트는 제주 정부와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보다 더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제주도는 본토와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덕분에 민속이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이곳은 최근의 급속한 개발로 민속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 지역 환경

제주도는 대한민국 본토로부터 남동쪽으로 1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과거에 제주도는 유배지로 사용되었다. 총 면적 1,848km<sup>2</sup>로 싱가포르의 세 배, 홍콩의 1.7배다. 땅은 보통 평지이며, 섬 모양은 타원형을 이룬다. 제주도의 중심부에 있는 한라산 때문에 동심원 형태의 등고선이 생겼으며, 해안을 따라 경작지가 펼쳐진다. 제주도는 사계절이 뚜렷한 아열대 기후로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35도까지 나타난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독특한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 덕분에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꼽힌다. 아름다운 해변, 폭포, 절벽, 동굴 등이 섬 전역에 산재해 있으며, 방문객은 이곳에서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사회산인 한라산 국립공원은 특히 유명하여 매년 5백만(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

도를 방문하고 있으며, 2002년에 유네스코는 제주도를 생태학 보호 구역인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로 지정했다.

제주도 경제의 1, 2, 3차 산업 비율은 각각 16.1%, 3.0%, 80.9%다. 인구는 557,000명으로 싱가포르의 13.0%, 홍콩의 8.0%이나, 제주도는 공항, 항구, 도로 시설 등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제주도의 모든 관광지는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다.

제주의 역사는 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1960년대 이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에 관광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제주도의 큰 잠재력을 인정했다. 정부는 2002년에 제주도를 '자유 국제 도시'로 지정하고, 2006년에는 '특별자치구'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더욱 커진 자치권을 이용하여 관광지와 비즈니스 단지 등의 건설을 위한 야심 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 2006년 7월부터 8월 8일까지 '인류와 유산을 한 자리에(Bringing People and Their Heritage Together)'라는 제목 하에 캄보디아 프놈펜과 라오스비엔티안에서 열린 동남아 지역의 박물관, 문화적 매핑 및 유산 관광에 관한 ICOM 비교 문화 연구 팀 워크샵에 제출된 사례 연구 논문. 회보 필요 시 연락처: museum@uq.edu.au

## 박물관기관의 환경

제주도에는 제주국립박물관, 제주민속자연박물관, 제주평화박물관, 제주 아프리카박물관 등을 포함한 40여 개의 박물관이 있다. 각각의 박물관들은 민속, 자연사, 해외 예술, 음식, 영화, 그리고 심지어 섹스에 이르기까지 각각 독특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 박물관의 절반은 '박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는 2005년에 지방의 박물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국립민속박물관이 이끌어 왔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자비를 들여 교육 프로그램, 전시물의 복구 및 정리를 위한 전문가 지원, 그리고 다양한 워크숍 등을 지방의 박물관들에 제공해 왔다.

제주도 개발을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 또한 제주도에 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프로젝트 진행 경과

2006년 1월, 국립민속박물관은 '지역 민속의 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며, 얼마 후 제주 민속의 해에 대한 계약을 제주도와 체결했다. E한 2006년 3월 말까지 제주도 및 지역의 민속 학자들과 협의를 거쳐 이 프로젝트의 일정과 세부계획을 세웠다. 같은 해 4월에는 본토에 사는 한국인이 알아듣기 힘든 매우 독특한 제주 방언을 연구하기 위해 국립 국어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측은 또한 제주 방언을 구전 무형유산으로서 보전하기 위해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고려중에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같은 4월 네 명의 박물관 직원과 여덟 명의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두 개의 연구 팀을 조직하여 제주 민속을 대표할 수 있는 두 개의 제주 마을에 파견했다. 이들은 11월까지 이 두 마을에 거주하면서 지역 민속 및 전통을 철저히 연구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국립민속박물관과 제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10년 간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특정 지역에 차례대로 중점을 두고 한 지역 당 2년의 시간을 할당한다. 2년 중 첫 해는 선정된 지역의 민속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해에는 첫 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시, 공연, 학술회의 등을 개최한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문화 상품의 개발도 기대된다. 이 시점까지는 국립민속 박물관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세 번째 해부터는 제주 정부가 프로젝트를 이끌어가야 한다.

제주도는 본토와 격리되어 있는 섬이라는 특성 덕분에 민속이 상대적

으로 잘 보존되어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최근의 급속한 개발로 민속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 리더십과 의사 결정

이 프로젝트의 공식 체제인 제주 민속의 해 위원회는 2006년 2월에 설립되어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을, 국립민속박물관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제주의 주요 문화 기관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국립민속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한 집행 위원회도 조직되었다. 사무국은 기획, 연구, 전시, 입수, 공연 및 교육 등의 5개 부서로 구성된다. 위원회와 사무국이 국립민속박물관과 제주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었기는 하나, 국립민속박물관 측이 프로젝트의 시작단계부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 문화 자원

제주는 매우 강하고 독특한 구전 민속 전통이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특히 본풀이[이야기 형태로 말하는 무가(巫歌)의 주제]와 노동요에 잘 나타난다. 구전 전통은 전설, 민요, 속담, 수수께끼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주의 노래들은 타지방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주를 종종 '민요의 보고(寶庫)'라고 부른다. 민요는 지역민들의 생활양식과 관계 있으며, 그들의 삶을 반영한다. 강력하고 역동적인 곡조와 가사는 제주민들의 태도와 상념 등을 반영한다. 제주는 또한 이야기의 고장이다. 제주의 마을마다 각자의 신화와 전설이 있다. 한라산의 구석진 곳 또는 틈, 바위 또는 절벽 하나하나마다 관련된 전설이나 이야기가 없는 곳이 없다. 제주민들은 섬에 18,000 이상의 신들이 살고 있다고 믿는다. 가장 영향력 있는 전형적인 구전 신화는 섬의 기원에 관한 것인데,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등 삼신인이 바다를 건너 온 세 명의 처녀와 결혼한 후 제주에 탐라국을 세웠다는 이야기이다. 이 신들은 문자 그대로 건국신들이 나온 구멍을 뜻하는 삼성혈(三姓穴)에서 등장했다고 전해지며, 지금도 제주에 가면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세 개의 구멍을 볼 수 있다.

제주에 민속 풍습과 샤머니즘적 기원을 가진 노래가 많다는 사실은 타지방에도 잘 알려져 있으며, 다른 유형의 음악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제주의 악기는 주로 무가에 쓰이는 타악기다.

민속 공예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건을 만드는 기술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왔다. 제주에는 갓, 대나무, 토속 풀 공예, 도자기, 염색 등



그림 1 제주도 풍경



그림 2 전통 물 단지인 허벅



그림 3 제주 해녀

을 포함한 다양한 민속 공예가 있다.

### 사회 경제적 투입과 산출

이 프로젝트의 예산은 약 250만 달러로 그 중 2백만 달러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나머지는 제주도에서 부담한다. 이 프로젝트는 제주 정부와 지역민들이 그들의 문화를 보다 잘 알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은 제주도의 민속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제주 문화 자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화 관광 중심지로서의 제주의 잠재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두 번째 해에는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몇몇 파일럿 프로그램들(전시, 공연, 컨퍼런스 등)이 실행된다.

첫 두해 동안의 주요 투자자는 중앙 정부, 여기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주도민이 이 프로젝트의 수혜자가 될 것이므로,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제주 지방 정부와 제주도민들의 담당이다. 제주도의 지역 신문과 방송은 이 프로젝트를 크게 환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프로젝트에 지역민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규제나 불이익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의 영향이 오랫동안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융통성 없는 비용 및 이윤 분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프로젝트와 그에 따른 상황은 유동적이어야 한다.

### 지속 가능성

이 프로젝트의 이익은 지속 가능하며 이러한 이익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이상 중 하나는 제주의 자연 및 문화유산이 보존될 수 있는 곳에 생태 박물관을 건설하는 것이다. 2년 후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인적 자원 및 재정적 자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제주 정부의 리더 역할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가 필수적이다.

###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교훈

이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교훈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서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첫째, 다른 모든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의 주체들은 명확한 장기적 비전과 전문성, 그리고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 국립민속박물관과 박물관장이 이 역할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했으며, 국립민속박물관 측은 초기에 중앙 정부의 지원(문화관광부)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둘째, 중앙 및 지역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이러한 협조를 위해 제주도와 필요한 계약을 맺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공동의 조직을 세웠다.

셋째, 지역 사회의 지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국립민속박물관은 지역 언론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의 지속을 위해 제주의 공공 및 민간 분야로부터의 자원을 제공 받아 지역 조직을 설립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그림 4 제주 해녀



그림 5 제주 민속 공연



그림3 제주 민속의 해 프로젝트 엠블럼. 이 엠블럼의 세 가지 색깔은 제주의 세 가지 대표적 특징을 상징하며, 녹색은 한라산, 오래지색은 감귤, 그리고 파란색은 물을 상징한다.